



백설공주의 목소리에,
일곱 난쟁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똥똥한 박사 난쟁이와
언제나 즐거운 즐거워
난쟁이가 앞장서서 할아
버지를 맞이했죠. "이런,
손님이 오셨군!" "반가워
요, 할아버지!"



심술쟁이, 재채기, 부끄럼쟁이, 잠꾸러기, 그리고 멍청이까지 모두 나와 할아버지를 에워쌌습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신기했지만, 모두의 눈에는 따뜻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두막 안은 따뜻한 수프 냄새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는 백설공주와 마주 앉아 물었습니다. "공주님, 동화책이 끝난 뒤로 어떻게 지내셨나요?" 백설공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똑같아요. 함께 노래하고, 숲을 돌보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드디어 마음 속에 담아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여러분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였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설공주의 눈에는 보석 같은 눈물이 어렸고, 난쟁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삶이 세상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들은 달빛 아래서 할아버지를 꼭 껴안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